

광주만의 특색있는 영화 생태계 구축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 출범 지역 자원 활용 다양한 영화제 육성 영화영상인연대 등과 시너지 기대

지난 3월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창·제작자, 배우, 영화연구자를 비롯해 영화에 관심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바로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과 광주영화인들의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1년도 광주시 영화산업활성화 추진현황과 사업계획들을 소개하고, 광주지역 영화계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여성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솔레'.

광주영상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최윤-이하 위원회)가 지난 2019년 7월 '광주영상영화진흥조례' 제정 이후 약 2년 만인 지난 2월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부산·인천·청주·충남·전주·전남·제주 등 타 시·도에는 영상·영화정책 추진기구가 일찍이 운영되고 있던 반면 광주는 최근야 영상·영화진흥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위원회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관련 단체 대표와 영화감독, 제작사와 영화 전문가들로 이뤄졌으며 위원장에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사를 맡고 있는 ㈜유비콘텐츠 최윤 대표가, 부위원장으로는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김지연 이사장이 선출됐다.

현재 광주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은 140명이며, 이들이 제작한 작품 수는 339개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 '아들의 이름으로', '정하게 이삿짐', '광주 정신 특별 기획' 등이 제작됐고 '사라지는 것들', '나고야의 바보들', '윤한봉과 국제평

화대행진', '오늘의 안부' 등 다양한 주제의 독립영화가 만들어졌다. 또 지난 2010년 시작한 광주여성영화제는 올해 12회를 앞두고 있는 등 다양한 영화 산업이 진행돼 왔다.

위원회의 역할은 광주 영상영화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심의다. 위원회는 지난 정기회의에서 광주 영화산업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위촉된 위원들에게 영화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수렴했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지역자원의 영화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향후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영화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영화도시 광주를 위한 시민교육과 향유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전당·광주극장·독립영화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영화제 육성, 영화 아카데미 등 장기적 영화산업정책 수립, 영화·영상분야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 영화 관련 교육공간 확보, 국

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자원 활용 연계할 컨트론타워 마련, 단편영화 지원 확대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주극장,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ACC 시네마테크,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광주독립영화관 등 영상관련 시설과 (사)광주영상위원회, 광주독립영화제작협회, 사단법인 빛남영화공동체,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등 영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 위원장은 "광주는 전국적으로 보면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할 만한 영상영화 관련 분야의 정책이 없었다"며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광주가 남도의 중심도시로서 한국 영화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영화영상문화가 자리를 잡고 산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우진 작 '평범한 사슴'

다시 만난 사물들



신양호 작 '욕동'

광주신세계갤러리, 28일~6월22일 '환경의 날' 특별전

신양호 작가의 작품 '욕동'은 버려진 물건들로 제작됐다. 낡은 나무판자와 납작하게 누른 다양한 종류의 알루미늄캔, 고철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으로 변신했다. 수묵으로 물고기를 그리던 작가는 어느날부터 캔, 수명이 다한 헤드폰 등 일상에서 마주하는 폐기물을 활용해 자신만의 '물고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물사육사가 꿈이었던 김우진 작가의 '평범한 사슴'은 플라스틱 의자와 자동차 도료를 재료로 제작됐다.

버려진 물건들이 근사한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환경의 날' (6월 5일)을 맞아 특별전 '다시 만난 사물' 전 (28일~6월22일)을 기획했다. '쉽게 쓰고 버리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기획으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프로젝트다.

이번 전시에는 김상현·김우진·신양호·양나희·이진경·조미영 작가를 초청했다. 출품된 작품들은 작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김상현·이진경 작가는 비닐봉지에 주목했다. 사진작업을 해온 이 작가의 '畫景山水 1101'은 알뜰 산수화처럼 보이지만 색이 없어지는 데 수백년이 걸리는 변들거리리는 검은 플라스틱 비닐봉지로 구현해낸 풍경이다. 김 작가는 대기업의 로고 등 다양한 내용이 프린트된 비닐봉지를 수십개의 액자에 넣은 설치 미술 작품 'Empty Bag



이진경 작 '畫景山水'

Empty Frame'을 전시한다.

포장용 골판지 상자를 자르고 이어붙여 우리 시대의 소박한 풍경을 담아내는 양나희 작가의 작품은 버려진 상자에 담겼을 누군가의 추억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그밖에 상자 등을 이용해 재개발 지역 등 소외된 풍경을 담은 조미영 작가의 '심리적 풍경-몽유도원도'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전시와 더불어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는 '플라스틱 프로젝트', '뮤지엄 재회' 등 에코프렌들리&업사이클링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하는 행사(6월4일~10일)도 개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5월의 미담-존엄' 광주민예총 만장전 27일~6월10일 5·18묘지



지난해 국립 5·18 묘지 입구에 걸렸던 만장 모습.

'만장'은 땅자를 애도해 지은 글을 깃발처럼 만든 것을 말한다. 해마다 5월이면 5월 정신을 상징하는 만장이 걸려 광주정신을 되새긴다.

올해도 전국 각지의 작가 30인이 참여하는 예술만장전이 국립묘지 입구에서 열린다. 광주민예총예술단체총연합(회장 박종화)이 오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5월의 미담-존엄'을 주제로 만장전을 개최한다.

이번 만장전은 5·18 전국화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의 예술가들이 동참해 5·18 역사를 기록하고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시는 광주의 9명 작가(조정태·임남진·김병택·최재덕·박승조·손향옥·김규표·정진영·김화순)를 비롯해 모두 30명 작가가 참여한다. 주제 '미담'은 생사를 다루는 긴박한 상황에도 자신을 던져 공동체를 살린 숭고한 시민의식을 기리고 세계 시민에 알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시 일정이 27일 부활제에 개막하고 6·10 항쟁의 날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호헌절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5월 학살의 원흉 전두환 정권을 끝장냈던 국민의 항쟁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은수 작가 '추상미술...' 강좌 27~2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27~28일 상반기 네 번째 인문학 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사는 박은수 작가(사진). 박 작가는 '추상미술 속 작가의 삶'을 주제로 난해한 추상미술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27일은 '현대미술에서 이미지의 운명'에 대해, 28일은 '예술가의 삶-일상이 길이 된다'에 대해 각각 이야기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작가는 조선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미술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개인전 30회 KIAF, ART BUSAN 등 다수의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광주시전 대상, 전남도전 대상, 무등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희망자는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62-670-7968)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